



아르헨티나 밀에 비가 너무 늦게 내려 2023/24년 예측이 빗나감.

(Rains come too late for Argentina's wheat as 2023/24 forecast slips)

최근 몇 주 동안의 비는 아르헨티나의 밀 수확기에 너무 늦게 왔으며,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는 수요일 2023/24년 수확량 전망을 80만 톤 줄였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이며, 몇 달 동안 지속된 가뭄이 끝난 후 절실히 필요했던 비는 주요 농업 지역에 안도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가뭄은 10월 20일까지 계속되었고, 곡물 거래소는 월간 곡물 보고서에서 늦은 서리로 인해 수확에 추가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예상 밀 수확량은 1,350만 톤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2022/23 시즌에 수확된 1,150만 톤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이에 비해 가뭄을 겪지 않은 2021/22년 수확량은 총 2,300만 톤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의 비는 밀 수확에는 너무 늦었지만, 아르헨티나의 콩과 옥수수에는 절실히 필요했다. 거래소는 2023/24시즌 아르헨티나 농민들이 대두 5,000만 톤과 옥수수 5,60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폴란드 운전자 파업으로 인해 11월 우크라이나 도로 식품 수출 감소

(Ukraine road food exports seen down in November amid Polish drivers' strike - brokers)

중개업자들은 수요일, 운전자 파업으로 인한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11월 첫 6일 동안 우크라이나의 도로를 통한 식품 출하량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수출 통계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게시하는 Spike Brokers는 Telegram 메시징 앱을 통해 11월 1일부터 6일까지 트럭을 통해 105,000톤의 농산물이 수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같은 기간의 108,000톤과 비교된다.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외국 경쟁업체로 인해 사업에 손실을 입은 폴란드 트럭 운전자들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월요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넘나드는 세 곳의 도로를 막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따르면 월 평균 4만~5만대의 트럭이 8번의 횡단을 통해 폴란드 국경을 통과하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화물은 우크라이나의 운송 수송선대가 운송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를 통해 다른 모든 이웃 국가들을 합친 것만큼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10월 도로 수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의 9월 전체 차량을 통한 수출량은 514,000톤으로 8월의 506,000톤에 비해 증가했다.

출처: Thomson Reuters